

특특뉴스

설 선물세트 과일·굴비 가격 하락

설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명절 선물로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굴비 가격은 지난해 설 때보다 하락했지만, 한우 가격은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과일은 작황 개선으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시세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이마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0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상 여건 덕분에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각각 전년보다 13.2%, 39.3% 늘었다고 설명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과와 배의 월평균 도매가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12월보다 20% 이상 낮아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 참조기 1kg 당 산지 가격이 1만730원으로, 전년 동월 1만944원보다 2%가량 내렸다. 한우 가격은 수요 증가 영향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 경제



인니 석탄수출 제한...산업계 긴장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제한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정했지만, 겨울철이라 전력 수요가 큰데다 글로벌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 비중을 보면 호주산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20%, 러시아 11%, 미국 9% 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일까지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원기업 경쟁력 강화”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지역발전 밑그림

선거공약 반영 노력

상의 사업 내실 다지고

사무국 조직역량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지역경제 발전과 회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올해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거센 도전에 직면했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진단했다.

또 “광주지역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AI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또한 첫 양산차인 ‘게스퍼’를 성공리에 출시해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올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위드 코로나시대 회원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 ▲정부·지자체 수임사업을 통한 회원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 ▲상의 사업 내실화 및 사무국 조직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광주상의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회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장기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올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미래형으로 개편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상공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철폐와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선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과 경영지원 컨설팅 사업 등을 내



실 있게 추진한다.

정 회장은 “회원회비 증액 운동 등 상의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사무국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국가 자

격 시험 확대, 상의 회관 개보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보광종합건설(주),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 이달 분양

단지 앞 광주천 조망...6개동 418가구 규모

보광종합건설(주)은 이달 중 광주 남구 방림동 1-1번지 일원에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는 지하 1층, 지상 27층, 6개동 전용 84·219㎡ 총 418가구 규모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부터 희소성 높은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230가구 ▲84㎡B 96가구 ▲123㎡ 90가구 ▲219㎡ 2가구다.

단지는 광주 남구 생활권과 동구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우선 1호선 학동중심사입구역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 IC도 가까이 광주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돋보인다. 도보 5분 거리 내 방림유치원과 방림초가 위치하며, 1km 내 학강초, 송의중, 송의과

학기술고, 동아여중고, 동일미래과학고, 설월여고 등이 있다.

이마트와 남광주시장이 단지 인근에 있어 장보기 편리하고, 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문화시설과 대형병원도 인접해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앞 광주천이 흐르고 있어 수변조망을 누릴 수 있고(일부 가구 제외), 천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운동과 여가도 즐길 수 있다.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는 남향 위주의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 투시도.

/보광종합건설(주) 제공

동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고, 4 Bay(베이)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도 우수하다. 펜트룸, 드레스룸, 파우더룸(일부 세대) 등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설계도 적용했다.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의 견본주택은 북구 경열로 250에 들어설 예정이며, 입주는 2023년 10월이다./이연수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2022 Vol.74 01

커버스토리
김상목 김대중컨설팅센터사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지역특집
1004선 공영화 사업

한국의 명품
한국의 매사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커버스토리)

SI·그린 등 호남권 혁신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사업권 대표 전시장 우뚝내부 직원과 소통... 민·관·학·연 핵심 전략적 마케팅지역인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별 초대석] 김원이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민주교육 확대교과교과점제 확대 2025년 입학·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재 시일병원장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천

[이달의 도서] 한강 작 작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향저우아시안게임·카타르월드컵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한국의 명품] 매사냥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공과 매가 함께하는 합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그쳐

안수기의 건강백세
밤 내어준다

지역특집 1004선 공영화 사업
사계절 꽃피는 힐링섬 ‘신안군’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양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메니얼’ 취향 저격·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신뢰·친절·맛·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